

육탄전·붉은 유니폼...치열했던 남·북 '기싸움'

北 안데르센 감독 대회내내 비밀훈련
홍팀 자격 북한 붉은 유니폼 선택하자
신태우호도 도열때 붉은 저지로 맞붙
여자경기때도 거친 몸싸움 분위기 험악



후회 없이 싸웠다. 팽팽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2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인 남북축구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주위를 둘러싼 냉랭한 분위기도 뜨거운 땀방울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한국과 북한은 11일과 12일 일본에서 남녀축구로 연달아 자웅을 겨뤘다.

동아시아 4개국이 참가하는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그 무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이 풀리그 방식으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운명의 남북전'은 피할 수 없었다.

11일 여자대표팀이 지바 소가스포르츠포크에서 먼저 경기를 치른 뒤 다음날 남자대표팀이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가우리만큼 좋지 않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동아시아 정세가 얼어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전을 향한 동아시아 4개국의 관심으로 옮겨갔다. 이를 연속 한 자리에 모인 남북축구를 놓고 일본 현지 기자들과 중국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관심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팀이었다. 북한의 요르 안데르센(54·노르웨이) 감독과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은 7일 기자회견과 공식훈련 그리고 9일 일본전이 전부. 나머지 기간에는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훈련을 감행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해 이날 경기에 나섰다.

팽팽한 신경전도 포착됐다. 여자 남북전에선 선수들이 거친 몸싸움을 펼쳐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남·북 남북전에선 유니폼으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펼쳤다. 이날 홈팀 자격을 지닌 북한은 붉은색 바탕의 유니폼을 택했다. 흰색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한국도 경기 전 그라운드 도열순서 때 강렬한 붉은색 저지를 걸치고 나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장 곳곳에서 축구 남북전이 품은 상징성을 느낄 수 있던 이틀이었다.

도쿄 | 고훈준 기자 shutoul@donga.com



이겼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경기. 한국은 12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E-1 챔피언십 2차전에서 북한의 자책골 덕분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명주(왼쪽)가 북한 정일만과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다. 도쿄 | 뉴스24

남·북 남자대표팀 감독의 말

“새 얼굴 이창민·진성욱·정승현 활약 구”

●한국 신태우 감독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북한이 우리를 분석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포백을 생각했겠지만 스리백을 들고 나와 애를 먹었다. 월드컵을 대비해 오늘 스리백을 다시 시험해봤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새얼굴 이창민, 진성욱, 정승현) 나무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다.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다만 팀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만큼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결과를 가져오려면 골이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해야 팀이 힘을 받는다. 앞으로 손을 보겠다. (한일전을 앞둔 각오는) 두 팀 모두 월드컵에 나간다. 비록 상대 홈경기이지만 이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 남북전 긴장...패스미스 많았다”

●북한 안데르센 감독

경기 초반은 팀이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 수비를 펼치는 전략으로 나왔다. 그러나 패스 실수가 잦아지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 선수들이 제대로 공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다.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주문했다. 오늘(남북전)은 모두에게 특별한 경기였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긴장을 조금 했다. 생각한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 아쉽다.



정리 | 고훈준 기자

통신원 리포트

외질·보아텡·괴체... F조 호화군단 독일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끝난 뒤 출전국들은 저마다 월드컵 준비에 나섰다. 한국대표팀도 물론이거니와 같은 F조의 나라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는 요아킴 뢰브(56) 감독이 이끄는 독일이다. 뢰브 감독은 현재 클럽월드컵이 한창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코치들을 소집해 그들만의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마르쿠스 조어커(51) 수석코치부터 토마스 슈나이더(45) 코치, 안드레아스 케(55) 골키퍼 코치까지 전부 소집시킨 뢰브는 “UAE로 향하기 이전에 클럽월드컵을 직접 관전한다”고 밝혔다. “우리 다시 고정관념 없이 틀에서 벗어나 축구를 봐야 한다. 현재 클럽월드컵을 통해 많은 좋은 기회들을 엿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F조에서 격돌할 멕시코의 클럽팀 CF마추카가 북·중미 대표로 참가하고, 대륙별 축구스타일도 확인할 수 있어 늘 연구하는 뢰브 감독으로서 최고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는 “코치진들도 미리 모여 우리들의 축구설계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닝 플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언제 시작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지를 먼저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 3월 23일에 스페인을 뮌헨드르프트로 불러들여 평가전을 갖기로 했다. 4일 뒤엔 2014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 상대였던 브라질을 베를린으로 초청한다. 최고의 스프링 상대로 러시아월드컵에 나갈 체체를 하고 있다.

독일의 강점을 꼽으려면 감독도 감독이지만 두터운 선수층이다. 현재 어느 나라도 독일만큼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하지 못한다. 전후후무하다시피 한 역대 최강의 라인업이 뢰브 감독의 부름만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의 유명 저널리스트 TZ는 ‘누가 월드컵으로 가는 배에 승선할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현재 부상 중인 마누엘 노이어를 비롯한 요슈아 키미히, 제롬 보야텡, 마츠 뮐렌스, 토마스 뮐러(이상 바이에른 뮌헨), 마르코 안드레 테 슈테켈(FC바르셀로나), 자미 케디라(유벤투스),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 올리안 드라슬러(파리 생제르맹), 메수트 외질(아스날) 그리고 티모 베르너(라이프치히) 이상 11명을 ‘100%’ 승선할 선수로 꼽았다.

안도니아 루디가(첼시), 일칼리 퀴도간, 레로이 자네(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마리오 괴체(도르트문트)도 ‘월드컵’ 승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예측했다. 베데딕트 뢰베테스(유벤투스), 케빈 트라프(파리 생제르맹), 슈코드란 무스타피(아스날) 등은 ‘고민할 만한 선수’, 안드레 슈렐레(도르트문트), 막스 쿠르제(베르더 브레멘), 케빈 폴란드(레버쿠젠) 등은 ‘승선 가능성이 희박한 선수’로 예측했다.

클러(독일) | 윤영신통신원

베이스캠프 뉴 피터호프 호텔, 공항 가깝고 주위 환경 쾌적

사커 토크

대표팀 베이스캠프 상트페테르부르크 확정

공항-숙소, 숙소-훈련장 30분내 거리
호텔 주위에 호수...식사 전용 산책 가능
선수단 전용 1인 1실 탐미형 전용공간도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 기간, 태극전사들의 안방이 될 베이스캠프가 러시아 북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한국대표팀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뉴 피터호프(News Peterhof) 호텔에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차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대표팀의 16강 전초기지로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할 지역에서 떨어져있지만 32개 출전국 선수단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마련한 전 세계로 이동하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축구협회와 대표팀 신태우(47) 감독이 베이스캠프 선정에 필요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은 건 크게 2가지다. ▲해당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거리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등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비행시간 30분 정도 차이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육로이동이 핵심 고려대상이었다. 지역 공항과 호텔이 너무 멀면 피로가 더 쌓인다. 베이스캠프는 그저 잠을 자고,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주변 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여름, 대회조직위원회가 FIFA를 통해 각 회원국들에 발송한 러시아월드컵 베

이스캠프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후보지가 5개 있다. 그 중 1곳은 이미 잉글랜드가 찍었다. 도심에서 60여Km 떨어진 소도시 레피노에 위치한 ‘포레스트믹스 클럽 스포츠&릴렉스’를 선정했다.

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먼 레피노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모스크바는 대부분 고층빌딩 형태의 호텔인데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걱정스러웠다. 결국 공항~숙소, 숙소~훈련장까지 반경 30분 이내 거리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뉴 피터호프’의 조건이 이면 면에서 훌륭했다.

2010년 개장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데다 호텔 주변에 큰 호수가 있어 선수단이 식사 전후로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좋다. 분수공원으로 유명한 페테르고프 궁전도 있어 전경이 우수한 장점도 있다.

대표팀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전원 1인 1실을 사용하며 식사와 팀 미팅을 위한 별도

의 전용 공간을 보장받았다. 전체 숙소동 가운데 2개가 오직 대표팀을 위해 사용되며 대회 기간동안 일반인들의 예약은 받지 않는다.

숙소 내의 피트니스 시설은 다소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축구협회 실사단이 3차례 후보지를 방문했을 때 꼭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호텔과 세트트 묶인 20여km 외곽의 전용훈련장은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으로 불린다. 그동안 지역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가 현재는 완전히 허물고 관중 500여명을 수용할 새 구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평균기온 섭씨 12~20도 안팎의 쾌적한 기후는 대표팀 격전지 노니즈노보고로드(17~18도), 로스토프나 도누(20~21도), 카잔(18~20도)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유럽 북부답게 6월 현지기온 일출시간이 오전 4시 40분, 일몰이 오후 11시 24분이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암막커튼은 필수다. 이 부분도 역시 대회조직위원회와 호텔 측에 추가로 요청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북, U-20 주전 골키퍼 송범근 영입

신장 196cm...계공권·순발력·판단력 갖
윤지혁·정호영·나성은 등 신예들도 보강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강’ 전북 현대가 차세대 최고 수문장으로 각광받는 송범근(20·고려대)을 영입했다(12월 1일 스포츠동아 6면 단독보도).

전북은 12일 “올해 신인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송범근이 자유계약으로 입단했다. 많은

국제대회를 통해 침착한 경기운영 능력을 발휘해 즉시 전력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입을 공식화했다.

송범근은 5~6월 국내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 신태우(47) 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끈 한국 U-20대표팀의 주전 골키퍼(GK)로 활약하며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아르헨티나~잉글랜드 등 전통의 축구강국들과



송범근

홍정남(29)~황병근(23) 등 기존 멤버들과의 GK 경쟁은 상당한 경쟁요소다.

송범근은 아직 A매치 경력은 없으나 김봉길(51)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에 차출, 2018자카르타아시아게임 출격을 노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송범근 영입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전북 최강희 감독은 “선수단 평균 신장이 확실히 높아졌다. 선배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송범근 이외에 ‘제2의 김민재’로 각광받는 중앙수비수 윤지혁(19·송실대)과 ‘멀티플레이어’ 정호영(20·전주대), 전북 유스 출신 공격수 나성은(21·수원대)을 영입해 신예 보강을 끝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안도현 기자 do02@donga.com